Compliance Notices 20220105오후

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. 참고만 바랍니다.

본 매체에 게제되는 모든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글쓴이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투자 참 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심심한 Insight: 오스템임플란트 후폭풍(feat. 원/달러 피크)

[선 3줄 요약]

- 1. 남 탓 할 것 없다. 이상할 것도 없다. 시장이 옳다.
- 2. 인플레 완화 시그널 + 원/달러가 1,200원 코앞, 상방이든 하방이든 각자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.
- 3. ETF 자금 흐름이 중요.

[Fact]



[Opinion]

- 1. 배당차익거래 목적의 금융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. 12월 금투 순매수 6조, 배당기준일부터 오늘 까지 순매도 4.9조, 아직 1.1조 남았음.
- 2. 그 와중에 연기금과
- 3. 사모펀드도 거드는 중.
- 4. 오늘 코스닥은 개인들이 끌어내린 거임. 순매수가 더 많아도 밑으로 팔고 받기만 하는 매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음. 추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-2.14%고 지난 12월 이후 최대 낙폭임.
- 5. 외국인은 나스닥 하락을 보고, 12월 한국의 수출이 매우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, 환율보고, 오스템임플란트도 보고 **코스피 사고(원/달러 환율이 피크일 수 있다는 생각)** 코스닥 팜.
- 6. 오늘 기관은 코스닥에 비교적 관심이 적었는데 코스닥 연초효과 선반영이라 판단한 투신, 기금, 사모가 팔았다고 조심스럽게 추정.
- 7. 금융투자 수급 해석이 요즘 어려운데, 오스템임플란트 들어있는 ETF 파는 수급이 있지 않았을까.
- 8. 외국인과 정반대로 가는 기관(금융투자) 헷징 포지션. 규모가 딱히 의미있진 않아보임.
- 9. 전문가분들께서 개별종목 장세를 예측하는 근거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함.
- 10.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형주 중에서 연기금이 관심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음.